

학 생 회 보

제 17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학생회

1993 년 11 월

학 생 회 보

제 17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학생회

1993 년 11 월

《 목 차 》

〈권두언〉 연세사학의 전환점에 서서	학생회장	1
1993학년도 제 2학기 대학원 학생회 사업계획		3
1) 연구부		3
2) 섭외부		4
3) 편집부		5
각 전공별 상황보고		6
〈기획기사〉 규장각 이용방법	이재운 (석 6)	8
1993학년도 제 2학기 개설과목 안내		10
93-1학기 한국사 전공답사를 다녀와서		
- ‘발로 쓰는 문화유적 답사기’(瑞山·泰安 편) — 원재린 (석 3)		16
모꼬지를 다녀와서	편 집 부	19
〈특별기고〉 ‘대학원 생활’에 대한 고백		21
학내외 동정		26
1993학년도 제 2학기 대학원 학사일정표		28
편집후기		29

연세사학의 전환점에 서서

대학원 사학과 학생회장

요즘 한국사회는 개혁과 개방의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투기의 제제, 세계개혁을 통해 그 여파가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그동안 돈 있거나 권력있다고 벌인 無所不爲한 행태가 비로소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제 '전설따라 삼천리'의 소재로 땅 투기해서 떼부자가 되었다는 일화가 등장할 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은 아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수준이고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이란 무엇인가.

올해 발생한 옥·해·공을 망라한 대형참사는 역사연구자에게 좋은 소재를 제공해준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天災'가 아니라 '人災'라고 말한다. 白선장의 잘못인가. 정책, 제도의 잘못인가. 결국 후자로 귀결되고 말았지만 원인 공방에서 애써 외면하려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잘 굴러갈 수 있다.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사람의 피와 땀을 짜낼수록 좋다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빈곤의 논리이다. 이는 대단히 人情的的이요 人本主義的이다. 왜냐하면 인간 주체의 무한한 능력에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발상법은 과거의 망령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한반도 전체에 나돌아 다니고 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몇몇 대학의 교수공채에서 선배들이 낙방한 사례는 연세사학의 발전을 염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학문적 발전이란 연구 성과의 축적과 더불어 학자들의 양산을 통해 학파를 구축하는 것일텐데, 그러한 기초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 학교의 풍토를 들어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안된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대안 없는 푸념에 불과하다면 소용없는 노릇이다. 90년대 학문적 발전추세는 연구의 관점이나 방법론에서도 이전보다 연구주제가 다양화되어 심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를 밟고 있다. 또한 서너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수십명의 전문연구자가 양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부각되고 있는 최신판 근대화론에의 학문적 대응이라든가 대중의 역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학과는 너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학부과정에서 전공과목이 불과 서너개 개설될 뿐이며 전공교수요원도 절대수가 부족하다. 대학원의 연구여건은 아주 열악해서 언급조차 할 수 없다. 반면 교양과목은 전국에서 최대의 수용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학과개편이나 교수임용에 관한 고무적인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그러한 청사진이 사학과와 모든 구성원에게 개방되고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원 학생회도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연세사학의 발전에 관한 분명한 대안을 갖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만일 주어진 과거에 머무른다면,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연세사학이 쓰러진다면 한국역사학계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명제가 정말 실현될지도 모른다.

1993학년도 제 2학기 대학원 학생회 사업계획

1) 연 구 부

이번학기 연구부의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이전 학기와 마찬가지로 「제7회 학림제」 개최와 「94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다.

먼저 2학기 학림제는 現 사학과 대학원 소속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과정생들의 공동연구성과 발표나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주제발표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번에는 후자의 형태를 쫓아 각 전공별로 역량있는 연구자를 선정, 세명의 발표자(한국사·동양사·서양사 각 1명)가 그간 각자의 관심에 따른 연구성과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학림제에서는 『역사연구방법론과 그 적용』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게 자기 전공분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역사해석 방법론과 그것의 적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게 된다. 혹 1학기에 치러진 선배연구자들의 초청강연에 비해 전문성이나 내용성이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대학원 성원들 가운데서 주체적으로 학림제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학림제를 통해 무엇보다도 2학기 학림제 발표형식이 확고히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후배 간의 만남을 통해 활발한 학문적 교류와 인간적인 교분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다음으로 94년도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다. 일부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원들에게 자질에 상관없이 자기 소속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 학기 오리엔테이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특히 합격자 발표이후 교육지연)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연락을 통해 신입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자칫 같은 대학원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각자의 전공분야에만 매몰되어 버리는 단점을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대학원소개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2) 섭 외 부

섭외부는 우선 사학과 대학원 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를 연결하는 일을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섭외부로서는 사학과 학생회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것을 대학원 총학생회에 전달하며, 대학원 학생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전달함과 동시에 사학과 학생회를 대표해서, 그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사학과 원생들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섭외부로서는 이에 대한 의무로서 보고하는 절차가 있게 된다.

우선 1학기의 사업보고에서 나온 사항은 과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것, 과별로 신청한 물품에 관한 내용, 회장단 선거에 대한 협조안, 원총사업을 보조할 인원에 관한 것이었다. 위의 사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약간의 사업은 2학기 섭외부에게로 이전되었다. 2학기 섭외부에서 한 활동이라고 한다면(구체적으로 이것이 섭외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물품을 수령한 것, 그리고 학림제와 관계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일단 이상으로 그간 섭외부의 활동을 보고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 각기 자세하게 보고한다.

2학기 과대표자회의는 93년 8월 24일 개최되었으며, 회의는 지난학기 사업평가와 결산보고를 시발로 하였다. 그리고 대학원신문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서 학생회비 인상안이 있었으며, 운영위원회의 설치, 총학생회선거에 관한 의견이 검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생회비 인상안은 과대표들의 투표결과 부결되었으며, 운영위원회는 지금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애석하게도(?) 총학생회선거는 출마자가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건의 사항으로서 등록금 분할납부가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학과 안에서도 많은 의견이 따로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93년도 1학기 사학과에서 신청한 물품인 프린터는 10월 중순경 총학생회측으로부터 수령하여 지금 사학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다. 또한 사학과 주요사업인 정기 학림제의 개최를 위한 활동으로는 개최장소로서 장기원 기념관을 대여하였으며, 총학생회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았다.

3) 편 집 부

편집부는 사학과 대학원의 소식지인 학생회보를 발간하고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일을 맡고 있다.

학생회보의 발행횟수에 대해 비록 지난 학기에 가능하다면 한 학기에 학생회보를 2차례 발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현실상 이번학기에는 1회 발행하면서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계획보다 학생회지의 발행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소식지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며, 또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생회보의 발행은 현실적으로 이 회보에 실릴 기사의 문제로 인하여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전부터 계획되어 오던 각 전공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원들의 소식이 학생회(혹은 과사무실)로 우선적으로 연락될 필요가 있으며, 서로 공유해야 할 정보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과 홍보매체라 할 수 있는 이 회보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주어야 적어도 학생회지가 과 내의 모든 정보와 소식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회지로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이번 학생회지는 이번보다 일찍 발간되어 11월 14일에 열리는 학림제에 대한 소개를 가장 큰 기사로 실고자 했으나 회지가 늦어짐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학생회지가 좀더 알찬 내용을 갖는 홍보매체로 자리잡기 위해 여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제진과 기사제공이 있기 바란다.

1993학년도 제 2학기 사학과 대학원 학생회비를 수납합니다. (박사과정 12,000원, 석사과정 6,000원) 총무나 각 전공대표에게 주시거나, 한일은행 연세지점 '126-01-36968 민후기' 앞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학생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전공별 상황 보고

《 한국 사 》

한국사 전공자들은 올해 8월 5일부터 7일까지 瑞山과 泰安지역을 중심으로 하계 정기답사를 다녀왔다. 寺院經濟와 漕運·漕倉이라는 주제하에 진행된 이번 답사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세사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공자들 사이의 친목도모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각 시대별 학습상황을 살펴보면, 고대사 전공자들은 지난 학기 『三國史記』 「誌」 강독 및 정리를 마치고, 이번 학기에는 선사비문을 중심으로 한 금석문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중세사 전공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던 『경제육전진록』 자료집 출간작업은 교정만을 남겨두고 있어, 올해 안에 출판되리라는 예상이다. 조선후기 전공자들은 매달 1회씩의 정기세미나와 함께 석사과정들이 중심이 되어 『민정자료』를 강독하고 있다. 일제시대 전공자들 역시 매달 1회씩 모여 자신의 논문구상발표 및 내용검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난 5월까지 대림동에 자리잡고 있던 근현대사 공부방은 보금자리를 연남동으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을 '창천역사연구실'로 확정지었다. '창천역사연구실'에서는 매달 정기발표회를 가지는데 7월에는 이지수 회원이 『농지개혁시기 토지자본전환정책과 지주전업』, 8월에는 정호훈 회원이 『백호 윤희의 사상과 정치·사회개혁론』을 발표하였다.

지난 8월 이윤갑 동문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9월에는 정용서, 홍용태 학형이 석사과정에, 김인호, 박명식, 이경란, 장규식, 하일식 동문이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 동 양 사 》

지난 여름방학 이후 학기가 시작되면서 각 분과별로 새로운 주제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고중세사 분과에서는 지난 학기에 이어 계속

해서 《史記》 강독을 일요일 오전에 계속하고 있으며, 이 팀에 이번학기 입학한 황지영이 새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방학 중에 함께 읽던 胡如雷, 《中國封建社會形態研究》에 이어, 계속해서 경제사상과 경제제도 측면을 공부하기 위해 胡奇窓, 《中國經濟思想史簡編》을 교재로 세미나를 진행중이다. 중국 근대사 분과는 현재는 인원부족으로 공동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 현대사 분과는 《중국공산당문건선집》 강독을 하고 있으며, 일본사 분과는 이번 학기부터 1945년 이후 현대사 부분으로 관심을 옮겨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각 분과별로 독립된 연구와 함께 이것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연남동 연구실에서 매월 1회의 월례발표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난 8월에는 이종원 회원이 <魏晉南北朝期 奴婢層의 지위변화에 대한 일고찰>을 발표하였는데, 이 발표가 이종원 회원의 논문방향에 대한 공식적인 첫발표였으며, 일본 유학을 마치고 오신 이계황 선배가 참석하였다. 9월 발표는 지현숙 회원이 <국민혁명기 向警予의 여성운동론>을 발표하였으며, 10월 발표가 있기 전에 특별 간담회가 개최되어 윤정분 동문이 <文化熱과 사상사 연구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문화열이란 이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 학술회의 변화들, 즉 서양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의 시점에서 孔子나 儒敎·사회주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등에 대해 전개되는 유학부흥운동, 西體中用論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학기 신입생으로는 정명옥(일본사)과 황지영(중국사) 2명이 입학하였다.

《 서 양 사 》

지난 학기에 새로 시작했던 서양사 월례발표회는 휴학, 논문 준비, 기타 과정생들의 개인적 사정이 겹침에 따라 여름방학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발표회에 참가할 수 있는 과정생의 수가 극히 적어 당분간은 발표회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기에는 박사과정 최용찬(독일사)과 석사과정 이혜민(프랑스사)이 입학하였다.

奎章閣 이용 안내

이 재 윤 (한국사 석 6)

* **규장각의 연혁**: 규장각은 정조 즉위년(1776) 창덕궁 北苑에 설치되어, 역대 국왕의 詩文, 親筆의 書畫, 願命, 遺文, 璽報 등을 관리하던 곳이다. 그러나 정조는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규장각을 청요직화하고 이제까지의 제반 각관의 기능을 합병 장악하여 권력을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즉 士氣 名節을 존중하는 청론을 강조함으로써 준론탕평의 실을 거둘 수 있는 청류 인사를 키워내고, 이를 기반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준론탕평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순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정조가 구상했던 실제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장각은 정치이념을 유지한다는 명목에서 상당한 기능을 하였다. 김조순이 순조연간을 일관해서 규장각의 검교제학직을 띠고 있으면서 규장각의 각관에 참여한 것이 좋은 사례이고, 규장각 직함이 증직에 사용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다. 규장각은 1894년 갑오경장으로 폐지되었으며 1910년 일제의 강점 이후 규장각의 장서는 조선총독부가 접수하였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다.

* **규장각 자료의 성격과 열람방법**: 규장각이 국가기관으로 설치되었으니 만큼 소장된 자료 역시 정부의 공식문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국가에서 수집한 개인 저작물도 상당히 많이 보관되어 있다. 열람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열람시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규장각의 개관시간은 일반 관공서와 동일하다. 자료열람을 신청하기 전에 《규장각도서한국본총목록》이나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를 참고하여 자신이 열람할 자료의 번호를 알아야 한다. 이 목록은 사학과 합동연구실 및 참고열람실 규장각에 비치되어 있다. 단, 간혹 목록이 잘못 기록된 것이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자료의 번호를 확인했으면, 규장각에 비치된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료가 나오면 주민등록증을 내고 자료를 받은 뒤에 이를 검토하여 복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자료복사신청

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복사한다. 이때 자료가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된 경우가 많은데, 이용법을 모를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복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부탁하면 (연세 교직원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비교적 친절하다고 느끼면서 작동법을 배울 수 있다.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대략 길게는 1시간 30분까지 기다려야 하니 주의하기 바란다. 더러는 연줄을 이용하여 빨리 받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저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다. 그래도 가급적 오전 9시를 전후로 해서 간다면 비교적 빨리 자료가 나오고 마이크로 필름 리더로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마이크로 필름에 수록되어있는 자료를 전체 복사한다면 이를 복사기로 다시 복사해서 1차 복사물은 규장각에 보관시키고(다음 사람이 복사하면 이것을 내주게 된다.) 복사한 사람은 2차 복사물을 가지고 가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2차복사물의 복사비를 복사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므로, 마이크로복사비(50원/1장)+ 복사기 복사비(30원/1장)=80원/1장을 내야하는 형액을 당한다는데 있다. 요령있게 처신하기 바란다.(규장각측은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복사하는 내용을 알 수 없다.)

* **규장각의 위치와 기타 부대시설**: 규장각은 서울대학교 구내 후생관 위쪽, 문화관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문에서 걸어 들어가면 약10분정도 걸린다. 좌석버스를 이용하여 학교 구내로 들어간다면 버스기사에게 교문지나서 첫번째 정거장에 내려달라고 해야하는데, 만약 종점까지 그냥 타고 갈 경우 내려서 약 10분정도 교문 쪽으로 걸어가야 한다.

규장각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대학교 구내식당으로 가격이 조금 비싼 후생관 식당과 학생식당인 제2식당, 제1식당, 개인이 운영하는 장터국수를 들 수 있다. 어느 곳에서 식사를 하든지 연세사랑의 마음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꼭 식사를 하고 올 것이며, 장터국수를 제외하고는 식사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밥을 먹을 수 없다.

합동연구실에서는 동문 선배님들의 출판된 책이나 발표된 논문의 별쇄본을 기증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사학연구회 (우편번호 120-749)」입니다. 동문 선배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출하고 반납하지 않은 합동연구실 도서를 가지고 계신 회원과 동문께서는 연체료와 함께 속히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학년도 제 2학기 대학원 개설과목 안내

《 한국사 》

강 의 명 : 한국근대사의 제문제 2

담당교수 : 김 용 섭 선생님

제 목 : 18세기 사상계의 동향과 타개책

강의내용 : 18세기 조선봉건사회 해체기를 맞이하여 英 · 正祖代를 중심으로 먼저 정치 · 법제 · 사회 · 경제적 모순에 대한 정부측의 타개책을 살펴본다. 즉 英 · 祖가 지향했던 개혁의 목표와 그 근거로 작용한 사상적 기저를 살펴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봉건사회에서 근대로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역사의 특징을 적출해 낸다.

다음으로 당시 이러한 봉건사회 모순에 직면하여 나타난 각 정파별의 사상적 대응을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하여 살펴본다. 먼저 老論의 朱子道統主義를 계승한 이단하 · 한원진을 중심으로 地主的 입장의 賦稅釐正策을 통한 國家再造論이 어떻게 강화 · 유지되어갔는지 살펴본다. 또한 反朱子的인 입장에서 현실의 모순을 타개하려했던 논자들을 살펴본다. 먼저 北學派는 홍대용 · 박지원 · 박제가, 少論系는 정제두 · 한원진 · 서유구, 畿湖南人系는 이익 · 안정복 · 채제공 · 정약용을 중심으로 이들의 反朱子的인 사상적 배경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農民의 입장의 土地改革을 통해 국가재조론을 살펴본다.

강 의 명 : 한국 고대사의 제문제

담당교수 : 이 희 덕 선생님

강의내용 : 삼국 · 통일기의 불교를 각 종파와 그에 관련된 대표적인 승려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다룬다. 종파에 대해서는 철학 자체에 대한 정리와 우리 고대사에 전개된 양상을 중심으로 알아보며, 승려에 대해서는 각 인물의 생애와 활동, 사상적 역할 등을 알아본다. 이

를 위하여 각 연구성과의 논점을 열거하며 대립되는 견해를 정리하며 불교의 수용기, 계율불교(자장 · 원광), 화엄사상(의상), 정토신앙(원효), 아미타신앙, 서민들의 불교신앙과 밀교, 미륵신앙, 선종 등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한다.

강 의 명 : 한국사상사연구 3

담당교수 : 김 준 석 선생님

강의내용 : 이 강의의 주제는 고려말 조선초 지식인들(儒者)의 불교관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麗末鮮初는 왕조교체기라는 점과 아울러 사상적으로는 주자학이 도입되고, 고려말 성장하는 신흥유신들에 의해서 주자학이 수용됨으로서 사회사상으로서의 주도적인 위치를 주자학이 차지하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조선의 최말기 까지 조선의 국정 교학으로서 주자학은 그 위치를 지켜간다. 따라서 당시의 지식인들이 주자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살피는 작업이야말로 조선후기의 사상적 흐름을 자리매김하는 작업에도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주자학의 수용을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그 의미를 바로 찾게하는 일이다.

그런데 당시 수입된 주자학이라는 것은 불교를 비판 극복함으로써 주도적인 사회사상이 될 수 있었으며, 그 속에서 주자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당시의 지식인들이 주자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불교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동시에 중국의 주자학이 수입되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주자학으로서 정착되어 가는 면을 살피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수업의 진행은 중국에서 당말이후 송대에 이르는 주자학 성립과정에서 보이는 불교비판과, 고려중기, 고려말기, 조선전기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지식인들이 보이는 불교관을 검토한다.

강 의 명 : 한국근대사론 1

담당교수 : 정 창 렬 선생님

강의내용 : 갑오농민전쟁 · 의병전쟁 등 민중운동이 안고 있었던 기본적인

과제는 중세 봉건체제를 해체하고 근대적인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것과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고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민중운동으로서 홍경래의 난·진주민란·갑오농민전쟁·의병전쟁의 순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강의를 진행해나가는 형식은 각 단계의 운동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위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이 시기 민중운동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동양사 》

강 의 명 : 중국근세사의 제문제 2

담당교수 : 황 원 구 선생님

강의내용 : 이 강의에서는 명청시기의 연구사정리를 토대로 정치·경제·사회·사상 등 각 분야별로 주요한 문제를 도출해 내고 이를 중심으로 각 시대마다 쟁점이 되는 사건들을 살펴본다. 특히 명청대의 사상관계로서 명대 동림당쟁과 복사운동, 명말청초의 三遺老의 사상, 그리고 명청대 정치기구로서의 내각과 군기처 등의 주제에 대하여 정리한다.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명·청대의 시대상을 살피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강 의 명 : 동아시아 사회사론

담당교수 : 민 영 규 선생님

강의내용 : 본 강의에서는 觀堂 王國維(1877-1927)의 《觀堂集林》 20권 중 〈胡服考〉편을 강독한다. 절강 海寧人인 왕국유는 中國고대사료, 古文物, 古字學, 音韻學 연구분야에 종사하여 많은 공헌을 남겼으며, 특히 중국희곡사를 연구하여 《宋元戲曲考》를 저술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中學, 西學이 부딪힌 청말 중서학 양자를 상호보완의 관계 속에서 발전시킬 것을 주장, 청대 譜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서양의 서양의 실증과학정신 수용하였다.

본 강의의 텍스트인 〈호복고〉는 호복이 중국에 들어와 일반

복장이 되는 과정과 호복의 구체적 내용을 중국 경학과 서양의 실증주의에 입각해 상세히 고증하고 있어 왕국유의 위와 같은 연구사적 위치를 검토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강 의 명 : 동양학의 역사와 구조

담당교수 : 박 영 재 선생님

강의내용 : 이 강의에서는 Edward Said가 그의 저서 *Orientalism*에서 주장하였던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인식 - 지배방식'이라는 관점을 넘어, 근대 일본의 동양학자들이 아시아에 대하여 가졌던 독특한 인식과 관점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주 교재로서 Stefan Tanaka의 *Japan's Orient -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California U.P., 1993.을 사용하고, 이 책의 각 장절을 완역하면서 관계되는 참고문헌을 읽고 있다. 참고도서로서는 佐藤三郎, 《近代日中交渉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4 ; 野原四郎·松本新八郎·江口朴郎, 《近代日本における歴史學の發達 上・下》, 青木書店, 1976 ; 松本三之介·山室信一, 《學問と知識人》(日本近代思想大系 10), 岩波書店, 1988 ; 田中彰·宮地定人, 《歴史認識》(日本近代思想大系 13), 岩波書店, 1991 등이 있다.

강 의 명 : 中國古代史의 諸問題 1

담당교수 : 김 유 철 선생님

강의내용 : 이 강의는 진한부터 위진남북조시까지의 중국사상사의 흐름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재는 임계유의 《중국철학발전사 진·한편》, 《중국철학발전사 위진남북조편》, 북경 인민출판사, 1985, 1988.를 가지고 하는데, 비록 각 시대의 사상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대체적인 흐름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전에 강독을 중심으로 해왔던 것과는 달리 각각의 논문을 읽는 동시에 각자 중국사상사에 관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병행시켜나가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글쓰기라는 다른 연습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강 의 명 : 중국 중세사료 연구 2

담당교수 : 지 배 선 선생님

강의내용 : 이 강의는 《洛陽伽藍記》의 강독을 위주로 하여, 당시 불교사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적 갈등과 문화교류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글은 北魏의 楊衒之가 지은 것으로 당시의 서역과 중국간의 불교의 교류와 사회상을 살피기에 매우 좋은 자료로 일본과 서구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는 자료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료를 읽어가는 과정에서는 지리적 고증과 정치적 세력 갈등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불교나 도교의 당시 모습을 여러 사람들의 대화속에서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正史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회상에 대한 기록들이 값지다고 할 것이다.

《 서양사 》

강 의 명 : 서양 중세 도시 연구

담당교수 : 고 성 환 선생님

강의내용 : 서양 중세 도시의 발생, 기본 특성, 도시의 자치, 시민계급의 형성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서양 시민 사회 발전의 기원 및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특히 서양의 도시와 동양의 도시를 비교함으로써, 동양에는 결여되어 있는 서양 도시의 특성(gemeinde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교재는 Max Weber의 *Economy and Society* (Bedminster Press, New York, 1968)이다.

강 의 명 : 영제국사 연구

담당교수 : 최 선 홍 선생님

강의내용 : 1783년 이후 영제국(British Empire)의 발전을 식민지에 대한 본국의 정책 — 즉, 노예제 폐지, 식민성 활동, 식민지의 정치개혁, 자유무역의 제국정책, 제국의 해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국이 해체되어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으로

성립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교재로는 Alfred LeRoy Burt의 *The Evolution of the British Empire and Commonwealth - From the American Revolution* (D.C. Heath and Company, Boston, 1956)와 그 밖에 단행본 몇 권이 더 추가된다.

강 의 명 : 프랑스사 연습 2

담당교수 : 전 수 연 선생님

강의내용 : 현대 프랑스, 특히 프랑스 제 3공화정 이후(1870년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우파의 동향과 이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즉 프랑스 우파에 대한 연구사 정리부터 시작하여 불랑제 사건, 우파의 공화국에의 가담(Ralliement), 드레퓔스 사건, 반유태주의(Anti-semitism), 프랑스 파시즘 등 각 토픽에 대하여 여러 논문을 읽으면서, 우파의 변천사를 시기별로 정리한다.

강 의 명 : 근대독일의 역사

담당교수 : 정 현 백 선생님

강의내용 : 독일 역사의 비극, 특히 나치즘의 대두와 패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독일근대사의 질곡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것은 19세기 독일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사회 모순에 의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강의는 19세기 전반기(1800~1866년)를 중심으로 대변동, 프로이센개혁, 1848년 혁명 그리고 반동 등의 커다란 사건들을 주로 다룬다. 이 강의에서는 결국 독일 시민사회는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하는지, 그리고 그 모순은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독일근대사의 질곡의 원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교재는 토마스 리퍼다이의 《독일사 1800-1866, 시민세계와 강력한 국가》, 1993. 이다.

'93년 여름 한국사 전공답사를 다녀와서

— '발로 쓰는 문화유적 답사기'(瑞山·泰安 편) —

원 재 린 (한국사 석 3)

때는 바야흐로 1993년 8월 5일 오전 10시30분. 피서인파로 혼잡한 서울역에 도착한 우리일행 7명은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일행 중 한 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진짜 같이 못떠나는.. '하는 바로 이때 나타난 김아무개 선배. 결국 우리는 지난번처럼 또 개찰구에서 스타트를 끊어 플랫폼으로 치달았다. 지난번에 비해 거리가 짧았기 망정이지.... 어쨌든 무사히 중세사답사를 떠난 우리는 기차를 타고 버스로 달려 瑞山에 도착하였다.

첫 답사지는 普願寺趾와 瑞山 磨涯三尊佛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승용차로 사전답사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버스시간표와 정확한 거리를 몰랐다. 답사지역 근처에 내린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모두 아무런 기약 없이 그저 걸었다. 그때 마침 바람쐬러 드라이브 나오신 두분의 착한 아저씨를 만나 트럭 뒤에 탈 수 있었고 이때부터 '우여곡절의 序幕'이 올랐다. 서로가 내심 황재했다고 기뻐하면서 트럭으로 무려 30분을 달려서 마침내 보원사지에 도착했다. 나즈막한 산을 배경으로 아직은 오염이 덜 된 개울을 건너 위치해 있는 보원사에서 가져온 답사지를 읽고, 당간지주와 5층석탑·탑비를 살폈다. 명색이 전공답사였지만 그저 둘러보고 사진만 찍을 뿐 피상적으로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역시 이 분야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선배님의 설명이 아쉬웠다. 다음으로 瑞山 마애삼존불로 향하였다. 걸어서 20분만에 도착한 그곳에서 우리는 그만 버스시간때문에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져 있는 마애삼존불의 온화한 미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다시 瑞山으로 향할 수 밖에 없었다.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지고 김아무개선배가 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1박 장소인 염포해수욕장으로 향하였다.

해변을 낀 산 중턱에 위치한 국내 유수의 제지회사 사장님 소유의 방갈로에서 답사의 첫날밤을 맞이하였다. 마침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전아무개씨의 해변콘서트장옆에서 우리는 생음악을 들으면서 여름밤의 정취를 共感覺적으로 느낄수 있었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저멀리 해안선에는 고깃배들의 뱃고동소리, 그 속에서 외쳐대는 절규에 가까운 노랫소리. "다시 돌고 돌~고~..." 애처롭기까지한 가수의 목소리는 피서지 답지 않게

썰렁한 서해안의 해수욕장에 메아리쳤고 노래가사처럼 태양은 지구를 한바퀴 돌고 돌아 다음날 아침에 다시 떠올랐다.

답사 이틀날답지 않게 숙취없이 멀쩡하게 깨어난 우리는 좀더 해변의 정취를 느껴보자는 일부 성원의 애원을 저버리고 다시 長征에 올랐다. 먼저 도착한 곳은 泰安 마애삼존불이었다. 50여분의 산행 끝에 도달한 산 정상에 삼존불을 보고난 우리는 서해안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경관에 매료되어 한동안 가던 발길 멈추고 휴식을 취하였다. 이어서 간 곳은 최치원을 모신다는 富城祠였다. 그곳 인심은 왜 그리도 無情한지 40여분을 꼬박 걸어서 도착한 부성사는 말이 사당이지 그저 村老 한분이 관리하고 있는 보잘것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이런 곳도 찾아 다니는 것이 바로 한국사 전공답사만의 특징인 것이었다. 나올 때는 지나가던 트럭 덕분에 금새 나올 수 있었고 마침 그곳에서 개장한지 얼마안되는 '안전기념관'에 들릴 수 있었다.

다시 瑞山에 나온 우리는 잠시 남은 일정을 놓고 의견이 갈리게 되었다. 시간이 늦었으니 開心寺는 다음으로 미루고 海美로 직행하자는 側과 이왕 온 것 그대로 밀어붙이자는 側이었다. 결국 길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대로 나가자는 '매派'가 승리하여 개심사행 버스를 탔다. 내심 시큰둥한 마음을 갖고 개심사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우리는 정류장 앞 가게 아주머니의 한마디 말에 그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곳에서 개심사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상 소요되며 해미행 버스는 한 시간 후인 6시 30분이 막차라는 것이었다. 너무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자는 홍아무개 후배의 근심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매파일행은 개심사행을 강행하였다. 무슨 대책도 없이 말이다. 벌써 날은 어두어 가고 다리는 아프고 개심사는 보이지도 않고 海美에는 언제가나... 萬感이 교차하는 그 순간 검은색 코란도 짚차가 우리 곁에 섰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 "개심사가는 길인데 타지?". 염치불구하고 4인승 짚차에 짐짝처럼 꾸겨탄 우리는 덜컥거리는 산길을 달리면서도 한껏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마다 기쁨에 들떠 기분 좋게 개심사에 도착하였다. 늦은 시간으로 인해 방문객이 별로 없는 山寺는 彼岸의 세상에 온것처럼 평온하였고, 그곳에서 우리는 배고픔도, 육신의 피로함도 모두 잊은채 마냥 산사의 정적 속에 빠져들었다. 마침 복채를 지니고 나타난 스님 한 분이 대웅전 앞 마당 한 귀퉁이에 걸려 있는 木魚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점점 빨라지는 둔탁한 목어소리, 잠시 후 스님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 땀방울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想念의 응어리인듯 격렬한 몸짓에 따라 한방울 두방울 千年의 佛力을 간직하고 있는 佛土속으로 떨어져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 저녁을 알리는 장중한 종

소리와 함께 평온은 깨졌고, 절 앞 숙세와의 구분을 위해 설치된 연못을 건너자마자 다시 고뇌와 번민이 가득찬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고 말았다. 갈 길이 까마득했다. 이제 해미행 막차가 20여분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떠벌 떠벌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걷고 있는 우리 눈 앞에 그 순간 믿기지 않은 광경이 벌어졌다. 서울도 아닌 이곳 충청도의 山間에 위치한 개심사에서 마침 이곳에 답사오신 이아무개 선배님 일행을 만난 것이었다. 이틀동안의 답사일정에서 가는곳마다 교통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나가던 트럭을 세워 타고 다녔던 우리였지만 이 순간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차가 6시간동안 고장나는 통에 바로 그 시간에 개심사에 들렀다는 선배님의 말씀에 범상치 않은 우연의 일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1시간만에 막차시간에 마쳐온 우리는 가게아줌마의 놀란 표정을 뒤로한 채 기분 좋게 해미로 향하였다.

해미의 최고급 여관에 여장을 푼 우리는 전날 미처 못한 답사발제문을 읽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끝나고 마련된 뒷풀이에서 우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화제삼아 벌여놓은 안주와 술을 마시며 답사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조선시대 음성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는 해미읍성을 돌아 보았다. 조선 후기 유교적 전통을 버리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순교한 천주교 신자들의 聖스러움이 남아있는 이 곳 해미읍성에서 죽음에도 굴하지 않은 그들의 신앙심과 어제 개심사에서 느꼈던 佛心, 그리고 답사일정에 있었던 우연스러운 상황들이 한데 어우러져 이 모든 것들이 웬지 이 고장에 깃든 역사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해미를 떠난 우리는 곧 바로 '온양민속박물관'에 들렀다. 넓은 館内外에 많은 유적·유물들이 잘 복원·보존 되어 있었으며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전근대시대 민중들의 생활양식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다. 관람을 마치고 1시간만에 천안을 거쳐 서울에 이르기까지 답사기간 내내 그랬던 것 처럼 순조롭게 아무일 없이 일정을 끝낼 수 있었다.

이번 답사의 준비과정과 참여인원면에서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사에 참여한 성원들이 보여준 조금은 무모한 듯 보인 놀라운 답사熱意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보이지 않은 힘 때문에 한국사 전공답사는 영원히 지속되며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모든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이번 답사에서처럼 놀라운 경험을 함께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

모꼬지를 다녀와서

편 집 부

아침부터 출발한 모꼬지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번 모꼬지는 딱 퍼진,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모꼬지는 아침 11시정도 혹은 오후 1시정도에 출발을 하지만 이번 모꼬지는 오후 5시가 넘어서 출발해서 그런지 정기총회의 약간 늘어진 분위기가 이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했지요. 게다가 모꼬지 장소인 일영 할머니집과는 꽤 멀리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오래 걸어들어간 탓인지 피곤했을 수 밖에는요.

그러나 모꼬지는 모꼬지! 꽤 많은 사람이 참가해서 그런지 저녁준비도 해야지, 술도 먹어야지 어디 피곤할 틈이 있었겠어요? 해야될 이야기는 빨리 마치고 놀자는 총무님의 의견에 각 토론주제들과 보고들은 후딱 해치우고 우리들의 앞에는 알콜과 안주들이 놓여졌죠. 하지만 지난 학기 모꼬지때와 같은 스타는 이번에는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스타가 될 뻔했던 사람이 방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술에 취해가지고, 방안에 들어와서는 내내 자빠져 잤기 때문이지 뭐!

여흥은 언제나 똑같지요. 술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건 아닌거 같은데... 뭐 아니면 어땡소, 안 그래요?)... 그러나 이번 모꼬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분하게 만드는 한마디, 아니지 두마디 말이 있었지요. 그게 뭘까요? 자, 다들 귀 막으시지요. "아~악! 쏘크!" 혹시 들어나 보셨나요? 한국사 석사 6학기 장모군과 4학기 박모군이 주도적으로 이 밤을 광란화시켰죠. 거기에 불을 지폈다고나 할까 한국사 3학기 김모군이 함세함으로써 사람들이 '어이구 자긴 다 글렀구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이걸 따라 하느라고 결국 노래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목이 쉬었어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동양사 4학기 김모군은 이 돼지 먹따는 소리 옆에서도 꽃꽂이 자는 엄청난 수면욕(?력)을 과시하기도 했구요. 그 스타가 될 뻔한 사람은 옆에서 헛소리 뻑뻑 해대면서 제정신인지 맨정신인지 중얼중얼거렸구요. 醉者無敵이라고, 어이구! 취한 인간을 어찌지도 못하고.....

야발대로 온 우리의 석사 방모학형 그리고 '뽀로롱' 박모학형이 합세하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지요. 신입생들의 노랫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노래를 부르거나 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학원에 못온다'는 사실이었어요. 상상을 해 보세요. 모꼬지 가서 오페라 아리아(아닌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아마도 이번 모꼬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을까요?

새벽 서너시쯤 되었나. 사람들이 몇명씩 모여서 놀기 시작하더니 확연하게 자는 사람과 노는 사람이 갈라져버렸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열심히 노래부르고 술먹다가 결국 쓰러져서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홉시, 밤새 깨어 있던 모 학형의 말로는 새벽에 여학생들과 한 남자가 이미 출발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필자도 제 2대에 끼어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그 모꼬지 장소를 빠져 나왔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한 두세시간 쯤 있다가 걸어 나왔겠죠.

연락처가 바뀐 회원과 동문께서는 사학과 학생회 편집부(연세대학교 사학과 사무실 ☎ 02-361-2370)로 바뀐 조수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안내하거나 학생회보를 발송하는 데 필요합니다.

< 특 별 기 고 >

'대학원 생활'에 대한 고백

편집부장에게 '대학원에서의 여학생 생활'이라는 주제로 원고를 부탁받았을 때의 난감함이란 아마 당해본 사람 아니면 짐작하기 어려울지나. 이러한 주제가 가질 수 있는 민감성 내지는 편파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러한 글을 쓸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 앞선 때문이었다. 결국 후배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펜을 들고야 마는 (이것은 옛스러운 표현이고, 사실은 컴퓨터 앞에 앉고야 마는) 나의 심정은 지금, 깨어있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생쥐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사학과처럼 긴 대학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원생들보다 인간적인 갈등이 더 많기 마련이다. 청춘의 대부분(?)을 대학원 생활에 바치는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정도가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서로의 인생에 더 깊숙이 개입하고자 하며 그러한 개입이 간섭이나 참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도 많다. 그러나 이들의 미덕은 서로간의 이러한 개입을 간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순수성에 있다.

이들이 하는 고민의 대부분은 매우 실존적이다. 불확실한 미래가 있기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어느 시인의 말과는 달리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이들은 방황하고 좌절한다. 그러나 그 나이의 다른 사람들이 이미 고정된 자기 역할에 안주하면서 살치고 기름진 중년이 되어 가고 있을 무렵, 이들은 아직 방황하고 좌절할 그 무엇이 남아 있어 더욱 아름답다.

이들의 실존적인 고민 중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여학생들이 갖는 고민이다. 이들은 입학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 폐기만만하게 대학원에 첫발을 내딛는다. 이들은 의욕적이며 생기발랄하다. 같은 학기의 남학생들이 대개 군복무 등의 이유로 삭아 있는 것(죄송!)에 비하면 심지어는 세대차이를 느끼게조차 한다. 그러나 비극은 이제부터다. 이 여학생은 한 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대학원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심스러워지기조차 하는 심각한 증병을 앓게 된다. 믿어

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학과 대학원의 모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가 양 : 나는 대학원에 들어온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생각보다 공부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원의 인간관계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내게는 부담으로만 여겨졌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데 연구실에는 왜 나와야 하나, 또 연구실에서 공부도 안되는데 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나, 대학원은 공부하는 곳인데 왜 공부 외적인 강제가 이리도 많으며, 내 삶의 스타일에 왜 이들은 이리도 간섭이 심할까? 이들은 내 개인적인 고민이 무엇인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며 나를 옥죄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선후배라는 관계 자체도 부담스러울 따름이다.

나 양 : 나는 사학과 대학원의 여학생들이 다 여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여자 친구 내지 신부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정한 유형과 그들의 동료 여학생이 조금이라도 일치하는 경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여름에 짧은 치마만 입어도, 모처럼 기분 전환으로 머리 모양만 바꾸어도, 평소 혈색이 없어 화장만 약간 해도, 이들은 이를 마치 고등학교 훈육주임처럼 평점을 매긴다.

이럴 때면 꼭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같이 느껴지곤 한다. 말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그 말이 돌고 돌아 본인에게 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차라리 그들이 내게 직접 속시원히 말해 준다면 좋을 것을…….

다 양 : 나는 사학과 대학원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집에 질려 버렸다. 그들은 여학생이 술자리나 기타 모임에 참석을 잘 하면, 공부는 안하고 놀기만 한다고 뒤에서 흉보고, 잘 참석하지 않으면 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느라고 바쁜 모양이라고 빈정거린다. 같은 학기의 다른 남학생이 모임에 안 나오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거나 세미나 준비를 하리라고 '생각해 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학생은 보통의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주목의 대상은 그 여학생의 공부 능력도, 남학생들에게 흔히 평가되는 것들도 아니다. 그것은 공부에 관련된 것은 확실히 아니며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여학생의 외모에서 시작하여 말투, 성격, 하다못해 남자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에 이르기까지 어느 경우에도 이 여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아예 틀린 일이다. 외모가 못생겼으면 여자로서의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은연중 업신여기기 일수다. 외모가 예쁜 여자라면 관참을까? 아니 이 경우는 더욱 악의적이다. 이들은 무의식중에 그 여학생을 밥상 위의 꽃처럼 여기고 있으

며, "얼굴값 하느라고 공부하겠어?"하는 의견이 지배적 담론을 형성한다. 나는 가끔 이들이 남의 결점을 요리조리 뜯어보는데 드는 시간에 공부를 한줄이라도 더 한다면 아마 졸업 학기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이러한 구설수에 신경쓰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한줄이라도 더 한다면 졸업 학기가 꽤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르 양 : 나는 2년전에 결혼했고 지난 학기에 졸업했다. 공부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보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나의 고민인데, 가끔 나는 내가 정말 이 고민의 '주체'인가 생각해 보곤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고민의 핵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까지의 많은 동기 선후배들의 시선이 나를 괴롭힌다. 나는 그들이 나를 단지 '여자'가 아닌 '동료'로서 생각하기를 정말로 원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나를 진정한 동료로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졸업하기 전에 결혼해 버리자, 이번에는 결혼한 여자는 공부하기 힘들다, 공부하려면 독신으로 살든지 아니면 공부하지 않는게 낫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이유가 '사회적인 편견과 가정에서의 역할'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사회적인 편견에 그들이 가장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 내가 지금 공부를 그만둔다면, 이 편견으로 가득차 있는 사람들은 "역시 여자는……" 하고 생각할 것이 뻔하며,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전례를 만드는 것 같아 여자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그들이 나로 인해 당할 수모를 생각하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이 여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한다. 마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용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많은 남학생들의 주장처럼 '너무 민감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학생의 '대부분'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또다른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마 양 : 내가 보기에는 여학생들의 문제는 스스로에게 있으며 그 해결책도 역시 스스로에게 있는 것 같다.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그러한 눈으로 보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여학생 스스로 임태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들에게 편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편견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여학생들이 스스로

“난 여자니까.....”하고 생각하지 말고,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아주 부차적인 것이 될 것이다.

ㅁ 양의 이야기는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그 무엇이 빠져있다. 그것은 여학생들의 개인적 노력이 전부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ㅂ 양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ㅂ 양 : 나는 내가 여학생이라는 사실이 참피하다. 나는 한번도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설수의 대상이 되거나 인정받지 못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며 아니, 보편적이라고 해도 나오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동료 여학생들을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은 공부의 면에서나, 단체생활의 면에서나 전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뒤떨어져 있다. 나는 그들의 불평이 전부 자기 중심적인 것이거나, 피해망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치 이들만의 특수한 문제를 여학생 전부의 문제인양 떠벌이면서 동정받기를 원한다. 나는 이들과 다르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ㅅ 양의 경우에도 생각의 출발점은 동일하다.

ㅅ 양 : 나는 기본적으로 여학생의 문제는 여자의 원죄와 같다고 생각한다. 잘못은 도마 위에 올려지는 당사자에게 있다가 보다는 그 이전의 선배들이나 보통의 여성들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이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여학생이 지고 나가야 할 짐일 수 밖에 없다.

ㅅ 양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원죄’ 조차도 왜곡되고 편견된 시각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이야기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물론 위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양의 이야기는 필자가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섞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허구는 아니다. 오히려 허구인 것은 우리의 서로에 대한 신뢰이다.

공부를 해 나가는 문제의식의 면에서나, 삶에 대한 태도의 면에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밀도란 그저 한잔 술 이상의 것은 아니다. 우리는 대학원이라는 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자아실현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토론해 본 적이 드물다. 이는 우리가 현 사회에 대한 토론을 잊고 산지 오래된 사정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여학생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동료를 신뢰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생물학적, 사회학적 性差 때문이라고 암묵적으로 느낄 때,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어떠한 대화나 토론도 가능하지 않을 때, 이러한 문제의 궁극적 피해자는 바로 남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이다.

위의 여학생들은 약 2년전부터 한 학기에 한번 정도 만나서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는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 모임은 무슨 여학생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도 아니다. 혼자의 문제라고 느꼈을 때 가질 수 있는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심사만으로 생긴 것도 아니다. 이제 2년전과 달리 여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대학원의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이 학생이라기에는 좀 늙은 듯한, 사회적으로 어정쩡한 위치의 사람들이 그들의 실존적 고민을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간다는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학생 모임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최대의 피해자가 여학생이며, 그러므로 그 문제를 풀 열쇠의 일정부분이 여학생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이 글이 너무 도전적이고, 일부 편파적인 남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시켜 더욱 편파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하여 매우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들을 위한 덧붙임 : 이렇게 밖에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 해결방법이 무엇인지는 교과서같은 답 외에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대안이 뭐냐?”고 묻는 것이 두려워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었던 굴레를 깨고,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유능한 동료를 잃지 않고 그들의 가능성을 북돋아 준다는 점에서 남녀 어느 쪽에나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내외동정

〈유학 및 귀국〉

이계황 동문(석사마침, 동양사)이 일본 경도대학에서 박사논문을 제출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김희교 동문(석사마침, 동양사)이 상해 복단대학 박사과정에 유학차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연구발표〉

유용태 회원이 5월 제 36회 역사학대회에서 유용태회원이 「국민혁명기 지식 청년의 향촌운동과 호남농민협회의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허원 회원이 이화여대에서 동아시아역사연구회 주최로 「최근 중국의 기독교 인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현숙 동문이 10월 9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중국현대사 연구회 발표회에서 「국민혁명기 항경여의 여성운동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계황 동문이 10월 30일 홍익대학교에서 있었던 동양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朝·日의 국교재개교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1993년 8월 학위취득자〉

김기협, 『마테오 리치의 中國觀의 保守易不論』 (박사학위)

이운갑, 『韓國 近代의 商業的 農業研究

- 慶尙北道 地域의 農業變動을 中心으로』 (박사학위)

방광석, 『明治前期의 國家體制構想-1880年 前後 政治와 入憲論』 (석사학위)

이향철, 『近代日本의 商業的 農業의 發展과 農村協同組合

- 1920・30年代 長野縣을 中心으로』 (석사학위)

〈신입생〉

93-2학년도 신입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사과정 : 정용서, 홍용태(이상 한국사), 정명옥, 황지영(이상 동양사),
이혜민(서양사).

박사과정 : 하일식, 장규식, 이경란, 김인호, 박평식(이상 한국사),
최용찬(서양사).

〈신임조교〉

1993학년도 2학기 사무조교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조교장 : 최용찬(서양사 박사 1학기), 조교 : 구문희(한국사 석사 2학기),
신규환(동양사 석사 2학기), 이혜민(서양사 석사 1학기)

〈1993학년도 2학기 학생회와 임원위원회〉

학생회장 왕현종(박사 2학기, 한국사, 유임), 총무 민후기(석사 3학기, 동양사), 연구부장 원재린(석사 3학기, 한국사), 섭외부장 김성수(석사 3학기, 한국사), 편집부장 황윤경(석사 3학기, 동양사), 한국사 전공대표 박운재(석사 4학기), 동양사 전공대표 김성수(석사 3학기), 서양사 전공대표 정용숙(석사 4학기).

편집부에서는 『학생회보』 제 18호에 실을 원고를 모집합니다. 서평이나 영화평,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제언 등 형식과 분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편집부장에게 직접 주시거나 각 전공대표 혹은 학생회 집행부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1993학년도 제 2학기 대학원 학사일정표

8.23	1993학년도 제 2학기 개강
9. 6	석·박사과정 종합시험 결과보고 마감
9. 9 - 11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
9.16 - 22	석·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 교부 및 접수(학과)
10. 2	석·박사학위논문 제출자 및 심사위원 추천마감
10.15 - 16	1993학년도 제 2학기 수강과목 철회
10.16	학기 중간일. 재학생 외국어시험
10.25	박사학위논문 원고 접수마감(5부)
11. 1 - 8	석·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기간
11. 9	석·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 마감
11.18 - 20	1994학년도 제 1학기 수강 예비등록
11.29 - 12. 4	석·박사학위논문 체제검사(1부)
12. 1 - 11	석·박사학위논문 본심사기간
12. 4	1994학년도 전기 입학시험일(필답시험) 재학생 외국어시험(추가)
12.13	석·박사학위논문 본심사 결과보고 마감 겨울방학 시작
12.18	석·박사학위논문 제출마감
12.23	1993학년도 제 2학기 성적보고 마감
(1994)	
2.14 - 28	1994학년도 제 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2.18 - 19	신입생 및 복교·복적생 수강신청, 재학생 추가 수강신청
2.21	199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28	겨울방학 끝

편집후기

늦게나마 어렵게 학생회보가 완성되었다. 얼마나 우리 회원들이 이 회보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지, 아니면 와도 그만 안와도 그만인 것인지 편집부장으로서 판단할 수가 없다. 하지만 계속된 원고청탁과 재촉 끝에 하나의 완성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뿌듯함은 없다고는 못하겠다.

하지만 이 학생회보의 편집을 끝내는 시점에서 잠깐 언급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학생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원 사학과 학생회의 일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존속의 의미가 상실되는 일이기때문에.... 이즈음 어떤 글귀가 떠오른다. 작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어렵다는....

어쨌든 여러사람을 괴롭혀가며 이번의 학생회보가 완성되었다. 이 회보를 내는데 도움을 준 연구부장, 그리고 섭외부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다음학기 학생회보가 나올 때는 이번과 같은, 아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전철을 다시 되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학생회보

제 17호

1993년 3월 일 인쇄

1993년 3월 일 발행

발행인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사학과 학생회

연락처 :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사무실 (☎ 02-361-2370)

